

乙丑譜序

大抵 人類와 萬物은 모두 根源이 있다. 그러므로 東西古今
을 莫論하고 그 生成由來를 追求^{추구고찰}考察하여 그를 土臺로 보나
은 앞날을 開拓코자 함은 人間共通의 精神的인 欲求라 하겠다. 그
리하여 記錄을 남기게 된 것이 크게는 한 나라의 國史요 작게는
一家門의 族譜란 名目の 家乘이다. 때문에 國史없는 나라와
家乘없는 집안이 있을 수 없다. 國史가 있으므로 해서 先人들의
精神的인 遺産^{유산}과 文化的인 所産이 保全됨과 同時에 한 民族으로서
의 일이 永久不滅^{영구불멸}할 것이요 家乘이 있으므로 해서 祖先을 追慕^{추모}
는 人倫道德의 바탕 아래 一門中의 血統이 子子孫孫 繼承^{계승}될 것
이다. 그러나 時代가 變遷^{변천}하고 物質文明의 高潮로 말미아 마 民

順天朴氏世譜公洙世譜

族的인 歷史意識 乃至 民族的인 血統觀念이 희박하여 차츰

根本을 忘却하고 敗倫의 길로 치달이나 喪을가 慨嘆되는바 이

에 先人들의 뜻을 받들어 等閑속에 묻혀가는 族譜를 살려 沈

滯一路에 있는 敬祖思想을 일깨우고 孝悌之心을 培養하고 敦

宗睦親의 良識을 欵吹하여 나아가서는 國家社會의 美風良俗

의 昂揚에 一助가 되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回顧하던대 우리 順天朴氏世譜를 八十餘年前 重刊하셨다.

이렇듯 祖先들께서 남기신 譜書를 奉讀하노라면 고려 보문각

大提學公(諱淑貞)의 峻節과 清白吏 柳星公의 安民濟世之略等

繼々承々하 祖上들의 偉蹟垂訓을 一目瞭然하게 볼 수 있어 祖

先의 情이 不識間에 油然而 蘇生하고 또 宗派區分과 昭穆의

次序等 脈絡이 燦然찬연備具하여 敦族之誼돈족지의가 솟아나니 族譜의

고마움을 새삼 感銘감명하겠으며 餘慶여경을 누리니 子孫으로서 이

보다 더한 矜持금지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싶다.

譜書는 三十年을 一期로하여 修刊하는 것이 通俗的인 譜

規로 되어왔으나 生活手段의 廣域化와 故鄉을 떠나는 風潮풍조

가 盛行되어 四方으로 流離유리함으로써 先塋선영에 雜草만 우거지

고 至親마저도 顔面이 생소(生疎)하여지니 하물며 遠族이야

길가는 사람같이 보기가 일쑤이니 늦은 감이 없지 않을까

하다.

이번 修譜에는 司猛公(諱禮孫)派를 中心으로하여 曾祖(諱

日鉉)로부터 밝혀두는 바이오니 後孫들은 다음 順天朴氏世譜

司猛公(諱禮孫)派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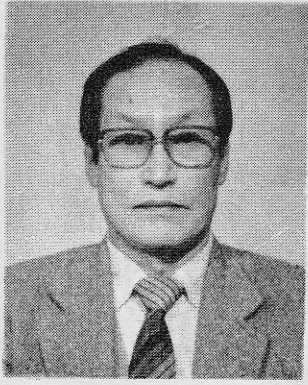
順天朴氏司猛公湊世譜

重刊時에는 일괄수보 一括修譜를 하도록 바라며 今般 修譜를 誠心껏
 責任을 다하여 有終의 美를 거두게한 韓國姓氏研究所 張所長
 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乙丑(西紀一九八五年)十二月 日

順天朴氏司猛公湊二十二世孫

魯善 謹識



司猛公湊
 二十二世孫 魯善 近影

順天朴氏司猛公(諱禮孫)派系列譜

中始祖

英規 영규

高麗開國功臣三重大匡 卒為海龍

山神(見輿地勝覽)

公初為旣萱將軍及萱子神劍作亂萱投于麗太祖公與夫人致書安尉於萱兼歸款於太祖請為內應太祖大喜厚賜其使旣誅神劍授公職左丞賜田千頃官 公二子(見麗史本傳)

光山譜曰按童蒙簽告公氣質剛毅不群云童蒙簽告未知何書

配百濟甄氏後百濟萱女○有二子三女 ○乙譜以下八九世失傳

註·始祖(諱英規)할아버지는 景明

壬의第七子江南大君(諱彦智)의

아드님이시다

公은 고려太祖를도와 전횡장군

및 전횡의子神劍이 나을일으키

자 고려太祖와 더불어 전(甄)씨

夫人과함께 그가투항하여 오도

後孫 蘭鳳 난봉

高麗政丞平陽君 卒為麟蹄山神(見輿地勝覽) ○乙譜曰

墓在順天府西三里許旧鄉枝麓金竹田封域至今完多靈異云而是故老相傳無碑誌可據之跡故久未封護而其山名俗稱鸞鳳與公諱同音似因公所葬而有此名也 ○旧譜云公居平陽里與張建達金摠家相望而射則越野以武藝與張金齊名順天居民至今稱之亦云與張為男妹云恐非實蹟而今聞 順天言則居民謂其山曰朴鸞峰指其墓曰朴將軍墓云則公或尚武藝否

配文化柳氏云而諸湫旧蹟文化柳譜並不見未知何所据而旣無明證故不錄 ○建齋閣以寒食歲修一祀 ○以下數世失傳

註·고려 정승平陽君이 인제산신으로 돌아가셨다고 여지승람에

보면 직려있고 족보에는 公의墓는 순천부서쪽三里밖 옛향교

의 왼쪽기슭 대밭분지에 지금도완연한데 다른靈이라云云하나

단지 이것은 옛날老인들이 서로 전할뿐인지라 비석도없이 흔

적을증거할수 있는것은 高山이름이 숙칭鸞鳳(난봉)이라하여 公

의諱字와 音이같아서 公의所葬으로 이런이름이 있다 ○구보에

公이平陽里에살면서 張建達, 金摠의집을 서로바라보며 활쏘기와

무예를 張金과더불어하였다고 지금도順天사람들은 말하고있으나

張氏男妹는 事實이아니라고 말하고있으나 지금 順天사람들의

말에依하면 高山이름이 난봉을가리켜 그墓는 朴將軍의 묘라고

루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였으며
 太祖의 請으로 모름지기 神劍을
 주살하니 太祖가 크게 베풀어
 開國功臣 三重大匡 左政丞에 除授
 되었으며 田畝四千畝를 下賜받으
 셨다 光山譜를 살펴보면 公은
 어릴적에 氣質이 강직하고 근세
 어 다른 어린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배위는 백제 견(甄)씨의 후손 견훤(甄萱)의 따님으로 두아들과 세따님을 두셨다.
 ○乙譜에 이르되 公九世는 失傳이다

하니 公이 후 무예를 숭상한 탓이 아닌가 한다
 文化柳氏云云하고 있으나 제과보(諸淑譜)와 文化柳氏譜에
 도 어디에 있는지 아직 보이지않아 증명할수 없는고로 기록
 하지않았다.
 齋閣을 세워 한해 한번씩 寒食날에 제사를 지내고있다
 以下 數世代는 失傳이다

蘭鳳後孫

淑貞

수정

光魯二譜公諱作叔貞與地勝覽作淑
 而旧尚二譜作淑貞證他書與旧尚譜
 同○高麗室文閣大提學公風流標致
 為世所重與李齊賢安軸諸賢友善云
 忠肅王丙寅年間以國子祭酒為開東
 存撫使高城四仙亭蔚珍翠雲樓皆公
 所創見奎益齋安謹齋所記○尚譜云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子元龍 율룡

高麗檢校吏部侍
 郎
 配星山李氏而父名

子天祥 천상

恭愍王朝武科都
 僉議侍中平陽府
 院君墓長湍賢成

子可興 가흥

入本朝官至檢校
 議政府右議政平
 陽府院君 謚靖

不錄且不見於諸

洞居人尚稱朴政

厚公墓在楊州松

派旧蹟及星李譜

丞墓而墓碣毀破

山西海郎里而今

未詳

未知某墳之為公

失其處

配永山金氏父永山

墓

配晉州鄭氏

正順大夫典校寺事集賢殿提學知制誥似是履歷海平尹譜又作判三司事大提學

配驪興閔氏 父代言蔣

註：光魯二譜에 公의諱를 叔貞이라 하였고 여지승람에는 淑이라 하였으나 舊二譜에淑貞이라 하였으며 다른譜에도 또같은라 고

러 보문각(室文閣)大提學으로 아름다운 기풍을 당세에 중히 여겨 李齊賢 安軸諸賢과 좋은 벗으로 忠甫王丙寅에 國子祭酒배위는 (고려때종삼품)의 직책으로 관동

준무사로 高城四仙亭 蔚珍翠雲樓는 다 公이창건하였다고 李益齋公과 安謹齋의 기록이다. 또

譜에 正順大夫典校寺(종四품)事 集賢殿提學(종二품) 知制誥를 역임했다는것이 海平尹氏譜에도

判三司大提學(正三品)을 지냈다는것이

고 같이하고있다. 卍위는 驪興閔氏요 代言蔣의 따

이(令胎)의 따남

로 父永山君영

모소는 장단성

君令胎祖侍閣學 配星山李氏父敬元 士仁榮曾祖紫金 魚袋翰林院事墳 外祖版圖正郎商 山朴允琪而按永 金譜無疑故今此 載錄

註：고려때상서 시랑(고려때상서성의(正四品)을 지내셨다

星山李氏 라고하나 父名의 기록이없으며 又諸譜에

은적이며 보이지 않으며 星山李氏譜에도 未詳

이다

永山金氏

父永山君영

모소는 장단성

星山李氏父敬元 公褒祖文烈公兆 年曾祖贈左政丞 長庚外祖大司成 慶州薛文遇育二 男

系配原州元氏父成 安府院君顯祖贊 成事忠曾祖大提 學權外祖贊成事 福安府院君安東 權謙○乙譜以李 氏為系配而按星 李譜書以前室生 二子舊譜亦李氏 為初配今從之

註：공민왕때 무

과에 卍제하여

도침의시중(正

四品) 평양부원

군을 지내셨다

累徵不起世傳吉

注書入金烏朴判

丙戌生 忌乙亥 墓陽陵西麓

子可實 가실

判漢城尹 謚文穆公

子可權 가권

嘉善大夫開城判 尹天資瑰璋才德 兼備歷啟華頭以 公平兼介稱之麗 運訖自杜門入星 州伽倻山洪武癸 酉卜居竹栢里坊 曰志士洞曰修倫 謝絕世事篤齋倫 敦禮教太宗大王 累徵不起世傳吉 注書入金烏朴判

子柳星 見下

子斗星 斗星 才器夙成十八中 生進壯元不幸早 世 墓高靈盤龍 中南卯坐有床石 世宗實錄第七十 一項曰慶尚道監 司朴蔡進海青一 連乃星州人朴斗 星所捕也賜觀察